



살아 있다는 건

다니카와 순타로 시 | 오카모토 요시로 그림 | 권남희 옮김
52쪽 | 190*250 | 13,000원 | 5세부터
출간일: 2020년 3월 26일 | 시리즈: 비룡소 그림동화 275
ISBN 978-89-491-1392-0 74800 / ISBN 978-89-491-1000-4 (세트)
도서명: 어린이용 각양장 도서 제조자명: (주)비룡소 제조국명: 대한민국 사용연령: 3세 이상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

아사히상 · 요미우리 문학상 수상, <하울의 움직이는 성> 주제가 작사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국민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가 전하는 삶의 의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무엇을 하든,
그 짧은 시간 속에 영원을 품고 있다.” - 다니카와 순타로

다니카와 순타로가 삶의 소중함에 대해 노래한 시「살다」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담아낸 그림책 『살아 있다는 건』이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다니카와 순타로는 19세의 나이로 등단, 첫 시집부터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화려하게 문단에 나타난 일본의 국민 시인이다. 요미우리 문학상, 아사히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저서 대부분이 베스트셀러이고, 10만 부 넘게 판매된 시집도 여러 권이다. 또 그림책 창작, 번역, 각본 및 <우주소년 아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주제가 작사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시인이 1971년에 발표한 시「살다」는 일본 국민 대부분이 첫 구절만 들어도 알 정도로 반세기에 걸쳐 사랑받는 ‘국민 시’다.

『살아 있다는 건』은 별다른 것 없는 매일매일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책이다. 시인은 삶을 거창한 것에 비유하지 않는다. 단지 지금 우리가 목이 마르거나, 햇살이 눈부신 것 등 무척 일상적인 행위와 곁에 있는 존재를 환기하며 지금 ‘살아 있다’는 감각을 일깨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질문. 그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 근본적인 대답을 들려주는 이 그림책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의 삶 속에서 두고두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일상에서 삶의 동력을 길어낸 시와 그림책의 만남

『살아 있다는 건』은 일본 북음관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문한 초등학교에서 “나는 언제 죽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죽게 될까요?”라며 죽음만 생각하는 소년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림책으로 재탄생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전해줄 수 없을까 생각할 때 떠오른 것이 다니카와 슌타로의 시였다고 한다.

공원에서 놀고, 할아버지 댁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남매. 할아버지의 생일에는 집으로 초대해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케이크도 자르며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따스하게 펼쳐진다. 이처럼 대단한 사건도, 특별한 모험도 없는 일상엔 작은 기쁨이 도처에 있다. 새는 날갯짓하고, 바다는 넘실대고, 달팽이는 기어가듯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산다는 것. 『살아 있다는 건』은 그 당연한 삶의 이치를 전한다.

다니카와 슌타로의 시「살다」는 일본 교과서에도 실렸으며, 거장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성장 영화〈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도 등장, 사진집, 재창작 시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부터 일상의 소중함을 잠시 잊어버린 어른들에게까지 반세기에 걸쳐 전 세대의 마음을 울려 왔다.

최근 미세먼지, 호주 산불,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세계에는 자연 재해, 재난, 질병 등 일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도처에 있다. 구체화된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 역시 격변하는 사회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꽃과 나무가 자라고 따뜻한 햇볕과 산들바람을 맞는 기분과 같이 그저 ‘살아 있다’는 감각이 쉽게 잊히는 요즘, 무엇보다 평범한 하루가 절실해진다. 『살아 있다는 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있다’는 그 당연하고도 감사한 사실을 일깨우며 오늘날 자라나는 아이들의 곁에서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다니카와 슌타로는 이 시가 단순히 죽음을 피하는 생존이 아닌, 마음에서 우리나는 생의 동력을 담은 시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독자들 역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훌륭함을 알아주면 좋겠다.”, “이거야 말로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에 잠시 멈춰 서서 읽으면 위로가 되는 한 권”(아마존 재팬)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지금 가장 필요한 그림책임을 증명했다.

■ 죽은 매미에서 시작해 탄생으로 이어지는, 삶의 철학을 관통하는 그림

『살아 있다는 건』은 시를 단순히 이미지화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감을 유지한 채 시어를 삽화에 정교하게 녹여낸 점이 가장 눈에 띈다. 그림을 그린 오카모토 요시로는 시 해설 강좌를 들으며 시를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애썼다고 한다. 1년 반의 시간 동안 35개의 더미를 거쳐 그림을 완성한 만큼 오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는 『살아 있다는 건』은 **그 어떤 날도 특별하지 않은 하루가 없다는 진리를 그림 속에 아름답게 펼쳐낸다.**

첫 장면은 죽은 매미를 들여다보는 소년의 시선에서 시작한다. 그 옆에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 쏟아지는 햇살에 목이 마른 아저씨, 배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임산부가 한 자리에 있다. 아주 평범한 공원,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는 이 한 컷에 삶과 죽음, ‘산다는 행위’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그림 한 컷 한 컷이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동네 빵집에서 할아버지 생일 케이크를 사고 귀가하는 엄마와 아이들. 그와 똑같은 풍경 위로 수박을 들고 손자, 손녀의 집을 찾는 할아버지가 지나간다.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는 저녁이 찾아온 거리 위로 가게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거리의 전자제품 가게에서 방영되는 수영 프로그램이 그 사이 잔치 준비로 분주한 집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눈에 펼쳐지는 정적인 그림임에도 움직임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페이지 사이사이에서 시간의 흐름이나 동시공간성을 무척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동안 타인의 삶도 역동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한다. 소년이 수족관 물고기를 더 구경하겠다고 엄마에게 떼도 쓰고,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는 동안 커피숍에서는 연인이 다투고 있고, 버스를 놓친 아저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택시에 올라탄다. 과일야채가게에서 팔던 멜론은 설레는 표정으로 꽃다발을 든 한 남자의 손에 들려 있다. 몇 번이고 다시 돌아와 살피게 되는 이 연속된 장면 속에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녹아 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화내는 지금. 그 삶 하나하나를 조명하다 보면 문득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삶이 무척 특별하게 여겨진다.

오카모토 요시로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삶의 철학을 되새긴다. ‘죽은 매미’(죽음)에서 시작해 ‘갓 태어난 매미’(탄생)의 모습으로 끝나는 삽화는 삶의 흐름을 관통한다. 또한 앞 글자를 따면 ‘희로애락’이 되는 마을의 간판은 시어를 장면에 담아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살렸다. ‘산다’는 그 당연하고도 단순한 행위가 곱씹을수록 새로이 변모하는 것처럼, 『살아 있다는 건』 또한 아이들이 시와 그림을 거듭 경험하며 삶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림책이다.

■ 작가 소개

지은이 다니카와 순타로

1931년 도쿄도에서 태어났다. 1952년에 첫 시집 『이십억 광년의 고독』을 출간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사랑받아 온 일본의 국민 시인이다. 1982년 『매일의 지도 日々の地図』로 제34회 요미우리 문학상을 받았으며, 그림책, 에세이, 번역, 각본, 작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책에도 관심이 많아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구덩이』, 『우리는 친구』 등의 작품을 썼다.

그린이 오카모토 요시로

1973년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태어났으며, 무사시노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그림, 입체, 동영상, 설치 미술까지 폭넓은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책으로는 『거인과 길 きょじんとみち』, 『100엔 탐험 100円たんけん』이 있고, 『우리에게 날개가 있던 무렵 ぼくたちに翼があったころ』 등에 삽화를 그렸다. 현재 가나가와현에 살고 있다.

옮긴이 권남희

일본 문학 전문 번역가. 지은 책으로 『귀찮지만 행복해 볼까』, 『번역에 살고 죽고』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달팽이식당』, 『카모메식당』, 『시드니!』, 『애도하는 사람』, 『빵가게 재습격』, 『반딧불이』,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 『평범한 나의 느긋한 작가 생활』, 『종이달』, 『배를 엮다』, 『누구』, 『후와후와』, 『츠바키 문구점』, 『반짝반짝 공화국』 외에 280여 권이 있다.

편집부 그림책팀 팀장 정은정 02)515-2000(내선번호 322)/ aimat@bir.co.kr
담당 편집 이재현 02)515-2000(내선번호 323)/ chae@bir.co.kr



[KC 인증 정보]

- | | | | |
|-----------------------------|---------------------|------------------------|-------------------------|
| 1. 13자리 바코드 : 9788949113920 | 4. KC 인증번호 : 따로 없음 | 7. 제조년월 : 2020. 3. 26. | 10. 주의 사항 : 종이에 손이 베이거나 |
| 2. 도서명 : 살아 있다는 건 | 5. 제품명 : 어린이 반양장 도서 | 8. 제조국 : 대한민국 | 모서리에 다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
| 3. 인증 유형 : 공급자직접성확인 | 6. 제조자명 : ㈜비룡소 | 9. 사용연령 : 3세 이상 | |